

‘마음꽃’

경허 지음 / 명정·정성욱 역음  
고요이침 / 1만 1천원

최근 발간된 **‘마음꽃’**과 **‘이뤄교’**는 제목이 다를 뿐 그 궁극적 지향은 같다. 영원한 마음 꽃을 활짝 피웠던 선사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경허스님이 열반하신 지 90년이 되는 해이다. 절묘하게도 성철스님은 9년 전에 열반하셨다. 9년과 90년, 시간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깨달음의 본래 자리



‘이뤄교’

성철 지음 / 원택 역음  
김영사 / 8천5백원

는 한치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근대 한국불교 최고 고승 가운데 한 사람인 경허 성우스님(1849~1912)의 계승을 번역한 **‘마음꽃’**과 가야산 호랑이라 불렀던 성철스님(1912~1993)의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을 뽑아놓은 **‘이뤄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마음의 꽃’ 피운 두 선사의 가르침

▶ **진리란?**  
〈마음꽃〉: 뛰어난 수재여 이 계승을 보라/내가 가리키는 종종한 푸른 산/진리를 믿어 의심 없으면/연등 부처 경지 아닌데 있으라  
누구에게든 들어 아닌 법 없겠는 가/가을 되면 기러기 때 남쪽으로 가네/저간의 진자 소식어/봄이 오면 응당 북쪽으로 가네

〈이뤄교〉: 서 있는 자리, 앉은 자리가 금방씩, 육결상 아닌 곳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풍월, 흥겨운 장단 속에서 춤을 추고 있다. 모든 동포 자매들이여! 눈을 들어 앉을 바라보라. 끝없는 광명이 우주를 비취서 항상 빛나고 있으니, 우주 자체가 광명이다.

▶ **부처는?**  
〈마〉: 부처와 중생 내가 알 바 아니고/해마다 으레 취한 미친 중일

뿐/때로는 잎이 멀리 바라보니/먼 산이 구름 밖으로 흥흥이 푸르네/세간 만법 무엇이 없고 시원한가/때에 따라 돌고도 모나고 하네/너른 천지에 모든 유정들/날날이 영지가 공했으니/삼가 통하려 하지 말라  
산은 은은하고 물은 잔잔히 흐르고/꽃은 피고 새는 우짖네/도인의

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니 모두가 평등하며 날마다 잠입합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고뇌를 초월하여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곳곳이 불가사의한 해탈 도량이니 신기하고도 신기합니다. 입은 웃은 각각 달라 천차만별이지만 부처님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이 평등하게 갖고 있다. 이 능력을 개발하면 곧 부처이니 달리 부처를 구하지 말 지어다.

▶ **깨달음이란?**  
〈마〉: 마음 달이 외로이 둥글어/그 빛이 만상을 삼켰네/빛과 경계를 함께 잊으면/다시 이것이 무엇인고  
누가 물이라 하며 누가 산이라 하는가/산은 구름 속에 있고 물은 돌 사이로 흐르네/대광명의 본체가 가이었는데/가슴을 열어제치고 바라보니 물과 산이더라  
〈이〉: 무심의 경지를 벗어나 홀연히 마음의 눈을 뜨면, 큰 지혜의 광명이 우주를 비추어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사실을 역력히 바로 보는 동시에 일체를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된다.

이은자 기자 eefee@buddhania.com

## 가슴 여니 ‘물은 물 산은 산’

사는 지혜가 다만 이리하니/어찌 구구하게 세속 정리에 따르겠는가  
〈이〉: 눈을 떠도 부처님, 눈을 감아도 부처님. 광활한 이 우주에 부처님을 피하려 해도 피할 곳이 없으니, 상하사방에 두루두루 접하며 당신네 생신을 축하합니다.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라. 일체

▶ **자성이란?**  
〈마〉: 일체 법을 스스로 배워 알게 되면 자성에는 소유가 없도다.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알면 곧 노사나 부처를 보리라.  
〈이〉: 불교에서는 ‘영원한 생명, 무한한 능력’을 불성, 법성, 진이라 고 표현한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

#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하세요

## ‘Tales from the Temples’

황유정 글 / 정경심 그림 / 브라이언 배리 번역  
커뮤니케이션즈 와이 / 2만8천원

〈Tales from the Temples〉는 불교나 사찰에 대한 안내서나 교리 해설서가 아니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을 법한 옛날이야기 같은,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친숙한 우리 집집의 설화와 전설을 담았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정서를 외국인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전등사, 수덕사, 운주사 등 10개 사찰의 설화에 사찰의 간략한 안내와 그림을 보태 영문으로 우리 절집 옛이야기 10편 영어로 내놓은 이 책은, 불교와



우리 절집 옛이야기 10편 영어로

사람을 특정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갖는 ‘문화’로서 이해하고, 한국의 대표문화로서 우리 절을 보여주고자 했다. 특히 이 책이 돋보이는 이유는 장황한 설명 대신, 그림이 바탕이야 주인이 되어 책 전편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 황유정씨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지 〈아시아

나〉의 기자와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출판 기획을 맡고 있다. 번역은 미국인으로 20여년간 국내에서 번역자,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며 현재 인간문화재인 민봉 스님 문하에서 불화를 공부하는 브라이언 배리씨가 맡았다. 그림은 서울대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정경심씨가 그렸다. (번역기사 13번)

해외동포나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해도 좋을 만한 독특하고 재미있는 책이다. 이은자 기자

## ‘달라이라마의 밀교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지음 / 석설오 편역  
효림 / 7천원



## 밀교에 대한 바른 이해 길잡이

7세기 대승불교의 화엄 사상을 기초로 인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불교 명상수행의 한 부파인 밀교에 대해 살펴본 책이 〈달라이라마의 밀교

란 무엇인가〉이다. 달라이라마는 서문에서 “최근 일부 잘못된 번역과 추론으로 밀교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있다. 때문에 밀교의 가르침에 대한 진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

‘밀교인 금강승(金剛乘)이 소승 대승 불교의 바라밀다승과 교리 수행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금강승을 수행할 수 있는지’, ‘색신(色身)은 꼭 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쉽게 풀이해 놓았다.

여수령 기자 snoooy@buddhania.com

##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강주수 외 / 현대불교 역음  
여시아문 / 1만 2천원

## 우리 이웃의 절절한 수행 체험기

현대불교신문사가 1995년부터 공모 해온 수행수기 당선작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그동안 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된 46편의 수기에는 우리 이웃들의 절절한 체험에서 빚어진 수행의 발자취가 녹아들어 있다. 농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바꾸는 ‘아니, 미국까지 와서’, 김연장, 3회 특별상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역경을 헤쳐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또한 감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용의 수기들은 왜

### 신행수기 당선작 46편 단행본으로

하기 위해 불교 수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내 생을 장애인과 함께’, 강주수, 1회 대상, 난소암 수술 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다니며 신행활동을 하며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이란, 2회 대상, 미국에서 겪은 개종의 유혹을 포교의 원력으로

교도소 등의 교정교회에 힘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절집 속담에 ‘남이 내 공부 해 준다’는 말이 있다. 이 체험담들은 독자들에게 발심의 계기와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여수령 기자



## 해의불서

## 성스러운 통과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마가렛 코벌리(Margaret Coberly)는 일상적으로 죽음을 목격한다. 그러나 그녀의 동생이 일에 걸린 자 환자의 임종을 바라보는 자신의 정신적, 감성적 이해가 매우 무지함을 절감하게 됐다. 이런 부



이들에게 실제적인 충고를 해준다. 명쾌하고도 쉬운 용어로 기술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 영혼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순서 즉, ‘죽음에 이르는 여

덜 번의 분해과정’을 배우게 된다. 저자는 또한 ‘죽음에 대한 명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이 책은 죽음과 관련한 방대한 문헌목록도 실고 있다. 미국 삼발라출판사 펴냄.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 금주의 베스트도서 10

##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탁 낫한	병진출판사
2	숫타니파타	법정스님	이레
3	이뤄교	성철스님	김영사
4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일근홍	솔바람
5	바로 이번생애	우똘디따	불광출판사
6	깨침과 깨달음	박성배	예문서원
7	마음에는 평화 일곱에는 미소	탁 낫한	김영사
8	생활속의 기도법	김현준	효림
9	달라이라마와 도용의 만남	김용욱	통나무
10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화동	은행나무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참된 삶의 목적은 당신의 의식 속에 감춰져 있다!

# 의식의 두 얼굴

## 저자 밀풍 리능(密豊 理能)은 누구인가?

오랜 수행생활을 통해 의식의 본질을 체득하게 되어 20여 년 전 참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깨달음이란 이론적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 실체임을 세상에 입증하기 위해 이들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식요법을 펼치고 있다.

## ‘의식의 두 얼굴’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도든 인간은 선천적인 ‘자연생리의식’과 후천적인 ‘뇌 의식’이란 두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다.

##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분명한 실체인 자연생리의식의 존재를 입증 및 설명하고 있으며, 자연생리의식과 뇌 의식의 명확한 구별을 생활화하면 누구든지 존재의 진정한 목적인 참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 저자는 간화선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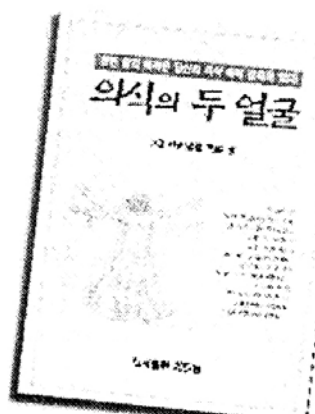
현재의 간화선 수행법은 자연생리의식과 뇌 의식을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자연생리의식의 타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참된 깨달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저자가 원호·경허·성철·서옹·진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승려 5인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한마디로 이 땅에 바른 불법(佛法)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이들 승려 5인이 정각(正覺)에 이른 것이 아닌 오십마(五十魔)의 마군(魔軍)이라면 큰일 아닌가!

## 이 책은 누가 읽어야 하는가?

삶의 참목적에 망각한 채 살고 있는 많은 이들, 수행?수련생활에 정진하고 있거나 뜻을 두고 있는 이들, 암·간경화·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 및 가족들, 한국의 불교 현실 및 바른 불법(佛法)을 알고자 하는 이들, 진정한 이상향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부인하고 있는 이들……



밀풍 리능(密豊 理能) 옮김  
변형 크라운판 / 400면  
값 18,000원

도서출판 의단원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층 400-3 동우빌딩 405호  
Tel: 032-347-8118-9 Fax: 032-341-8117  
저자 상담 Tel: 011-559-8118, E-mail: reenong@mndbody.co.kr  
도서 주문 Homepage: http://www.mndbody.co.kr  
우체국 계좌번호 104950-01-000455, 예금주: 의단원

당대 불교사상과 실정을 조망하는 한국불교의 정론지!

# 참여불교 9·10월호 발간



## 특집1. 대학생의 종교활동 인식조사

이번 호에서는 외환위기가 ‘참여불교’와 한국대학생불교연맹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학생분자들의 불교활동과 교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특징으로 실었다. 특히 지난 2000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조사와 비교 분석한 내용이 실려있다.

## 특집2. 평화와 영성-2002 아셈인간포럼 국내 워크숍

생활속의 수행 가난에 대하여 참여불교의 창 남원이 속을 썩이겨들랑  
기획연재, 절집건축과 생태주의 ④ - 심정정 국토정책의 사찰건축 / 이은하  
기획연재2, 동서문화의 시각과 분기, 그리고 동서미술 ④ - 인도와 타이완의 신(神)문화 / 김현진

## 지상종교 도술, 달라이라마를 만난 후

초창논문 매스미디어와 불교  
사찰경엄림림 바람직한 사찰의 공간이미지  
김종천의 경제평론 부동산도 주가조작처럼 황금낙산은 탄다  
영화읽기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바깥사와 안면  
이 책을 말한다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운여울이 본 한국불교 사기야기타회의를 다녀와서  
국제종교동향 미국 가톨릭 개혁단체, 교역이 직결부 거부운동 추진  
종교개혁동향 개혁적 교회정관 만든 시흥교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관공제연인의 마음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달라이라마의 법문중에서

www.buddha21.org buddha21@budgate.net 110-340 서울시 용문구 인선동 30-6 신대빌딩 205호 T 745-7799

각화간 〈참여불교〉는 전국 70여개 대학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참여불교의 관련된 좋은 기고문을 신고자 합니다. 판매가격 7,000원 / 1년구독료 35,000원 / 구독문의: 02-745-7799